

닭고기 소비, 미국을 닮자

우리나라는 유난히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 중에서도 삼겹살은 세계 최고의 소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삼겹살 수입량이 아주 많은데 많은 국민들이 수입삼겹살인줄 모르고 먹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국은 닭고기 소비가 돼지고기와 맞먹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닭고기 소비를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White meet' 만이 미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홍보 전략을 세워 홍보한 결과 닭고기 소비 비율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합친 비율과 50:50으로 맞먹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에게 닭고기는 단순히 계란과 고기 등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전통적으로 아주 친근한 이미지가 강하다.

한국의 사위들은 처갓집에 가면 씨암탉 잡아주는 장모님의 뜨거운 정성을 기억한다. 전통 혼례를 올릴 때면 의례 베풀어 화려한 수탉과 암탉을 올린다. 이렇게 닭은 한국 혼례문화의 상징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6.25 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을 때 집에서 키우던 닭을 한 마리 잡아 온 식구가 잔치를 벌이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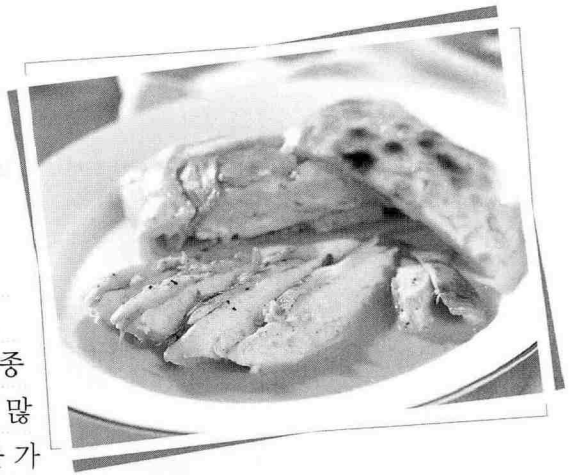
또 여름이 되면 땀을 많이 흘려 모든 사람들이 진이 빠지고 원기가 없어 축 처지게 마련이다. 이럴 때 삼계탕을 진하게 끓여먹으면 기운이 솟구친다. 이렇듯 닭은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가축이다.

가난하던 어릴 적 60~70년대는 또 어땠나. 콩보리밥 도시락 속에 계란 후라이 한 장 들어가면 엄청난 부자로 인정받던 추억이 있다.

닭고기 산업은 농민들이 빠른 시간 내 돈을 만져볼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인 동시에 대 소비자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해서 국민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닭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계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급하다. 사육 환경이 좋아야 생산






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닭은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하고, 견딜 수가 없다. 각종 호흡기 질병에 노출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닭은 약간의 추위나 더위를 이겨낼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어벽이 완벽한 계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국의 육계산업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실시될 전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미국과 같이 'White meat' 운동을 펼쳐 한국의 학생들이 닭고기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나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세 가지 축종 중 육계분야만이 아직도 의무자조금제도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조금 제도가 정착되어야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산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루속히 육계분야도 의무자조금제도가 실현되기만을 기대한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닭고기 소비가 미국보다도 더 우위에 우뚝 서서 육계농가가 항시 웃으며 밝은 마음으로 닭을 길렀으면 좋겠다.

또한 도시의 닭고기 음식점 모두 날로 번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_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 이성열

'e-닭고기 세상'은 독자들의 열린 공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편집실로 날라온 독자들의 글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e-닭고기 세상'에 기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hj@chicken.or.kr)로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31)707-5722~4 '월간 닭고기' 편집부

